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를 위하여

글 유영기 대림산업주식회사 홍보팀

공익활동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 역할이 비교적 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의 공익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한국 상황에서 재단사업의 다양화와 공익사업의 다양화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림산업도 기업의 보수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 상품의 품질과 기술력만으로는 비교우위를 접할 수 없다는 점을 절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방편으로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통하여 우리 소비자가 속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소비자에게 호소력 있는 파워 브랜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 전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대림산업은 1995년, 대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대전 지역에서 한림미술관을 개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2002년 5월 보다 더 팽창되고 확장된 의미에서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 종로 통의동에 대림미술관을 설립, 개관하게 되었다.

대림산업과 몇몇 관계사가 출자한 대림문화재단의 대

림미술관은 사진적 시각을 통한 현대미술의 분석을 표방하며 사진매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술관으로 문을 열었다. 프랑스의 미술관 전문 건축가인 뱅상 코르뉴(Vincen Cornu)와 루브르 미술학교의 장 폴 미당(Jean-Paul Midant) 교수가 설계한 대림미술관은 253평의 대지 위에 지상 4층, 연면적 366평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 지어졌으며 개인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건물 내부의 기존 작은 방들을 그대로 살려 전체적으로 리드미컬한 조화를 살렸다. 전시실 2층은 동서로 동선의 축을 잡아 아름다운 도시와 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사진 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부드럽고 반사로부터 벗어난 빛을 위해 간접조명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대림미술관은 개관기념전으로 <사진과 패션 모델의 변천사>를 개관 중이다. 이 전시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리며 다양한 패션 사진을 통해 20세기 초부터 21세기에 이르는 1세기에 걸친 패션 모델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진역사전이다. 만 레이(Man Ray), 모리스 타바르(Maurice Tabard), 사라 문(Sarah Moon), 한국의 배준성 등 모두 32명의 예술가들의 사진작품 175점과 비디오 작품 1점이 전시된다. 프랑스 문화성 국립조형예술부장인 아녜스 드 구비용 생 시르(Agnes de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대림 미술관. 사진은 개관기념전으로 열리고 있는 <사진과 패션 모델의 변천사>



Gouvion Saint-Cyr)와 더불어 전시기획을 하였다. ‘사진과 패션 모델의 변천사’라는 주제가 예시하듯이 전문적인 예술애호가는 물론 대중들도 흥미롭게 널리 다가갈 수 있는 전시다. 개관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무이다(문의전화 : 02-720-0667).

아울러 대림미술관은 우선 문화예술 특유의 고급스런 이미지가 ‘대림 e-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 브랜드에 차별된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것과 동시에 예술가들이 창조해 낸 문화예술 각 장르의 개성이 우리 ‘대림 e-편한세상’ 각각의 단지에 각기 다른 색깔을 담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림은 한 나라의 문화 발전의 척도가 문화 인프라의 규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삶의 기반이 되는 주거단지에서부터 문화를 배양하는 토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단지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각품들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미적 감각을 길러줄 것이다. 그리고 대림이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보문화관 건립 사업은 정보화 문화와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림 e-편한세상’에 정보문화관의 영상관과 인터넷 교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주거생활에서부터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파트 단지를 전국 곳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림은 문화예술과의 조화롭고 공생적인 관계를 통해 대림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항상 고객들 곁에서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